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2008년 환경성 진료환자 전년대비 4.0% 증가

-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~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는 2008년 759만명(전년대비 4.0%)으로 인구 1만명당 2002년 1,165명에서 2008년 1,517명으로 연평균 3.4% 증가함.
- 알레르기 비염 진료환자는 2008년 495만명(전년대비 8.7%)으로 2002년 인구 1만명당 631명에서 2008년 인구 1,034명으로 연평균 6.4% 증가함.
 -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연령상으로는 10세 미만이 21.1%(4세 이하 9.7%, 5~9세 11.5%)로 타 연령대에 비해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-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성과 연령을 표준화한 결과, 인구 1만명당 제주도(남성 1,215명, 여성 1,608명)가 가장 많았으며, 충청북도(남성 797명, 여성 946명)가 가장 적었음.
- 천식 진료환자는 2008년 242만명(전년대비 Δ 0.4%)으로 2002년 인구 1만명당 423명에서 2008년 인구 1만명당 484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, 최근 감소세를 보임.
 - 천식의 경우 연령상으로 10세 미만이 39.4%(4세 이하 23.3%, 5~9세 16.1%), 65세 이상이 15.9% 순으로 나타났으며, 경상남도가 인구 1만명당 5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 진료환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광역시(인구 1만명당 442명)로 나타남.
-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연령상으로는 10세 미만이 52.6%(4세 이하 34.5%, 5~9세 18.1%)로 타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10대가 18.9%를 기록해 20대 미만의 연령이 전체 구성비의 71.5%를 차지함.
 - 전국 대상의 성과 연령을 표준화한 결과, 인구 1만명당 제주도가 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216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환자를 기록함.
- 건강보험공단의 이상현 교수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료를 본 환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,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환경적 악화요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.

(2008년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759만명,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, 2/8)